◆…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 …◆
◆…의 개선 등으로 인간의 수명은 점차 연장되어가…◆
◆…고 있으며, 이에따른 갖가지 질병들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들중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병, 비…◆
◆…만증 등은 대표적인 성인병으로서 그 증가추세가…◆
◆…급격하여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

成人病管理의 효율적対策방향

崔 永 吉
〈慶熙醫大內科교수〉

国家的차원의 成人病管理대책강구돼야

지속적管理가능토록 保險制度개선도

국가적 保健정책

국가가 지향하여야할 보건의료정책의 근본목적은 전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 또는관리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데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완벽하며 무리없는 의료의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져야 겠으나, 아직도 우리의 형편으로는 이의 조속한실현이 어렵다 하겠다.

의학의 발달은 많은 질병들의 효과적치료 내지는 예방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되어가고 있다. 시대의 변천과생활수준의 향상은 질병의 분포나 양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어, 과거 국민소득이 낮았던 시절에는 각종 전염성 감염질환들이 국가적 관심이었으며, 실제 결핵관리사업이 국가적보건정책으로 시행되었던 것은그 본보기이다.

지상에 보도된 경제계획원의 1985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대 사망원인 중 자연사를제외한 3대원인이 고혈압 및이와 연관된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되어있다. 이는 우리사회에도 고혈압, 당뇨병등 소위 성인병이 주된 사망원인이 되었으며, 따라서 성인병 관리에 있어서 과거 결핵퇴치사업에기울였던 이상으로 국가적인 정책과 효율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생각한다.

작금 우리의 실정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당뇨병이나 고혈압환자의 발생빈도나유병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이며, 일부 소수의 대학병원이나 연구소에서제한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그동안 상당수의 의료인의 숫적 증가가 이루어져 있으며, 적지않은 대학이나 연구소에는 충분한자격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있어 이들에게 연구비 지원등정책적 배려 및 요구가 주어질때 상당한 업적을 이룰 수있는 여건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서 더 많은 생산적 연구요원의양성이 필요하지만, 기왕에 양성된 인적자원 마저도 활용하지 못하고, 정책부재 내지는 연구활동의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므로서 유능한 고급인력이 사장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통인력으로 격하되고 마는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따라서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보다 적극적이며 과감한 연구지원을 펴야하겠으며, 여기에 국가적인 정책수립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근시안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함이 없이, 축적적 경제성장의 일부는 마땅히 국민전체의 의료사회복지에 돌리므로서 보다 건강한 국민, 생산력이 극대화되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성인병 관리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의료정책 수행에는 다음 몇가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첫째,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야한다. 당뇨병이나고혈압은 어느 일정기간만 치료하고 중단할 수 없는 평생동안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제한된 의료보험제도하에서는 일년중 6개월은 치료하고 6개월은 형편에 따라적당히 치료받거나 방치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내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능한 조건하에서 평생동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치료보다는 예방적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전 국민적 계도내지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발병이 되면 평생동안 소요되는 경비가 막대하나 이를 예방하여 발병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면 이는 분명히생산적인 사업인 것이며, 우선은 환자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때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겠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예방사업이야 말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효과를 얻게되는 정책이라 믿는다.

셋째, 위의 효과적인 예방사업의 실천을 위하여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각 대학병원에는 일부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그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예방의 의미보다는 치료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당뇨병 고혈압등의 유병률 조사등 기초사업의 전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의 효과적인 수행의 한방법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의 요원이나 공중 보건의에게 단기 훈련과정을 마친후에 이들을 통하여 우선 당뇨병과고혈압에 관한 기본적 교육자료를 배부하고 자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미 결핵퇴치사업이나 인구조절 사업이 상당한효과를 걷은것을 보면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믿는다.

또 한가지 방법은 성인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협산하의 분과학회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연구및 정책입안은 물론 그실행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사실상 각 분과학회에는 그분야의 최고 전문인들이 모인 집단이며 누구나 성인병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때문이다. 효과적인 의료정책의 입안에는 필연적으로 정확한 통계자료가필요하며 그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은 상식적인 일이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기초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중요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그분야의 전문가가 얼마나 참여하며 어느정도 전문가의 뜻이 반영되는지 알수가없다. 전문가의 참여가 없는 전문가가 외면하는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이제 곧 전국민이 의료보험의 수혜자가 된다고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며, 어느 사이에 우리 경제가 이토록 성장되었는지 놀랍다. 형식적인 사회보장이 아닌 진실로 국민보건에 유익한 의료행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따라서 이제는마땅히 결핵퇴치사업이나 인구억제사업등 후진국형 보건사업에 머물지 말고, 이미 우리의 3대 사망률에 올라와 있는 소위 문화병이라 불리우던 성인병의 관리에 국가적 차원의관심과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第6차 5個年 1987~1991 計劃을 알아본다
保健医療部門 어떻게 되나

각종成人病유병률調査등基礎事業전개
보다적극적인弘報및保健教育강화必要

謹賀新年

일동제약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 금 기
전무이사 정 필 근
서울시동대문구신설동45
전화 : 922~0101~5

주식회사한유약품
사장 김 영 철
서울시동대문구장안동159~2
전화 : 244~5003

삼양산업사
사장 이 종 담
서울시동대문구휘경동252
전화 : 247~4775

대웅제약주식회사
회장 윤 영 환
서울시강남구서초동1069
전화 : 583~9000

주식회사중외상사
사장 이 광 선
서울시강남구역삼동75~31
전화 : 556~8993